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사업위험</p>	<p><b>가. 신약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위험</b></p> <p>당사는 2015년 설립부터 한국 제약 바이오 내에서 혁신신약의 개발후보물질 발굴과 자체 발굴한 신약의 연구, 개발과 함께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글로벌 대형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본 사업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이오벤처기업입니다. 신약개발은 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완제의약품의 시장 판매까지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 후보물질의 발굴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임상 시험을 통하여 약물의 효능과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후보물질 발굴까지의 연구단계, 비임상시험부터 임상시험까지의 개발단계, 그리고 최종 제품으로 판매되기 위한 허가 및 생산, 마케팅 단계가 모두 완료되기까지 성공확률은 낮은 수준이며 이와 함께 오랜 시간과 대규모 비용이 소요됩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신약 개발사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수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사업개발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임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어야 하거나 임상실패 등 이유로 인해 신약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b>나. 기술이전 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위험</b></p> <p>당사는 후보물질 발굴 신약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형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을 사업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당사는 BBT-401(아시아판권), BBT-877 의 두개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완료했으며, BBT-401의 파이프라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 진행중인 후속 파이프라인인 BBT-176의 기술 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시, 이에 따른 기술이전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 기술 이전 파트너의 전략 및 성향 등 각 기업별 상황에 따라 기술 이전 시점이 당사의 계획과 달리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b>다. 업무 위탁 기관 관련 위험</b></p>
-------------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당사는 신약개발을 위해 개발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완제 의약품의 생산을 GMP 국제 품질인증을 획득한 외부 전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등에서 수행하고있습니다. 동물 시험이나 규제에 따라 전문 비임상 시험 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국내외 비임상 시험 수탁기관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에서 진행하며, 비임상 및 임상 시험에 필요한 신약 후보 물질의 경우에는 생산 전문 대행 기관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MO)에서 위탁 생산합니다. 또한, 임상 시험의 경우에도 전문 임상 시험 수탁 기관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CRO, CMO의 사정에 의하여 당사의 신약 개발 계획이 지연되거나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b>라. 목표 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b></p> <p>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IPF 특발성폐섬유증, 폐양성대장염 치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시장과 관련해, BBT-401 폐양성대장염 치료제의 새로운 기전을 바탕으로 First-in-class 도전하는 약물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 시판까지 성공할 경우 동일한 기전 내 가장 앞서가는 약물로서 First-in-class 달성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BBT-877 오토택신 (Autotaxin) 저해제로 특발성 폐섬유증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은 당사 대비 임상 단계가 앞서나가는 G사의 경쟁약물 이존재 하지만, 당사는 현재 임상 1상 중간 결과의 효력 바이오마커(LPA 생성억제)분석에서 간접적 비교를 통해 보다 우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당사 약물이 시판까지 성공할 경우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동일한 기전 내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 증가, 당사 대비 임상 단계가 앞서나가고 있는 다른 기전 경쟁 약물들의 임상 성공 및 시판 승인 등이 발생 및 증가할 경우, 당사 제품의 시판 후 시장점유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b>마. 정부 정책 또는 규제 변화에 따른 위험</b></p> <p>바이오 산업은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국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한 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하는 여러</p>
--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모든 자료를 제출한 후에 판매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의약품의 개발과 허가에 필요한 시간을 늘리고 있으며, 또한 발매 후의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한 의무사항이 많아지는 것도 제약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으로서,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른 수출규모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만약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 37개 실천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거나, 관련 법규 제·개정 단계에서 난항이 발생하는 등 제약·바이오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의 기대효과가 감소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b>바. 기술이전 파트너사 관련 위험</b></p> <p>당사는 기존 기술이전을 진행한 대응제약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및 해외 제약사와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사와의 협력은 당사 파이프라인의 신약개발 성공 및 글로벌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파트너사의 사정에 의하여 당사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계획이 지연된다면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술이전한 파트너사의 임상 수행 능력, 파트너사 내부적인 이유로 파트너사가 임상 진행을 중단 또는 연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 경우 수취 예정인 로열티 등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향후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가 임상시험 실시 중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임상시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에는 파트너사의 제품 판매를 통한 매출 발생 시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b>사. 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위험</b></p> <p>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신약 개발 사업의 특성 상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수 많은 노하우와 경험, 정립된 프로세스가 당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핵심 경쟁력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에 의해서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한 연구인력 충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큰 위험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 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아. 핵심 원천기술 유출 및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b></p> <p>당사는 기술 기반 신약개발 벤처기업으로 기술 노하우 및 지적재산권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BBT-401 펠리노-1 (펠리노-1) 저해제 궤양성 대장염 (Ulcerative Colitis, UC) 치료제는 한국화학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실시계약에 의하여 도입하였습니다. BBT-877 오토택신 (Autotaxin) 저해제는 특발성 폐섬유증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을 표적질환으로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사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가 권리자인 특허에 대한 침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쟁은 발생한 바 없으나, 향후 제3자에 의하여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기술 및 사업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b>자. 도입계약에 의한 수익 배분에 따른 수익성 감소 위험</b></p> <p>당사는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BBT-401 의 기술도입은 한국화학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술실시계약에 의하여 도입, BBT-877 은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로 부터 전용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BBT-176 은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실시계약에 의하여도입 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술도입한 해당기관으로부터 각 기술도입 시에 선금금을 포함한 개발단계에 따른</p>
--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마일스톤에 기반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술도입한 계약 물질이 제 3 자 기술실시권 이전 수익 또는 상용화를 통한 수익 발생 시, 해당 관계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3 자 기술실시권 이전수익 (재실시) 시에는, 마일스톤의 지급 효력이 중지되고 대신 기술이전 수익을 일정지분에 따라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지급액은 매출원가로 계상됨에 따라 당사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감요안으로 수익성 및 성장성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회사위험</p>	<p><b>가. 기술성장특례 적용기업 관련 위험</b></p> <p>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특례 적용기업으로서, 통상 기술성장특례의 적용을 받은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상기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에 기술한 요인들로 인해 수익성 악화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b></p> <p>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기술성장기업(성장성 특례상장)으로서, 통상 기술성장기업특례의 적용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안정화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시현 중 입니다. 당사는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고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조기에 기술이전을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지만, 기술이전 시점의 지연 및 신약후보물질 개발 실패로 인해 당사의 흑자 전환 시점이 늦춰질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8 조(관리종목)에 의거 기술성장기업으로서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p> <p>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7 조 제 2 항에 의하여 상장되는 기술성장기업으로 동 규정 제 38 조(상장의 폐지) 제 1 항 제 4 호 및 제 4 의 2 호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액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 개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 동안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당사의 경우, 2019 년 상장할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3 년부터, 매출액 요건은 2025 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 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p>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의 폐지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매출액 또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다. 기술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 해지 관련 위험</b></p> <p>당사는 2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내 및 해외 기업들과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개발한 후보 파이프라인을 파트너사에게 기술이전함으로써 수익을 확보하고 있으며, 당사 매출은 기술이전에 따른 Upfront(선급계약금), Milestone(단계별 기술료) 및 Royalty(제품 출시 후 매출에 따른 수수료)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트너사와의 관계는 당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술이전 계약 파트너사의 제품 개발에 대한 정책 변경이나 제반여건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술이전 계약이 파기될 경우 매출이 감소하는 등 당사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b>라. 임상 계획 및 매출 실현 지연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b></p> <p>당사는 신고서제출일 현재 총 4개의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술이전된파이프라인은 BBT-401 과 BBT-877 입니다. BBT-401 은 Pellino-1 저해제 신약 후보물질을 한국화학연구원/성균관대로부터 도입하여 2018년 1월 IND를 신청하고, 2월 2일에 승인 이후 2018년 3월 첫 임상투약부터 10월 종료 후 현재는 임상 2상 중에 있습니다. BBT-877 은 오토택신(autotaxin) 저해제 계열의 신약 후보물질을 레고켄바이오사이언스로 도입하여, 2018년 11월 16일에 IND를 신청, 2018년 12월 15일에 임상 진행 승인을 받아 임상 1상 중으로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 하는 등 현재까지는 동사 주력기술인 신약 후보물질 사업화기술 수행실적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의 기술이전된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에 따라 파트너사로 부터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령할 수 있으나 개발과정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이 반드시 성공하여 품목 허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진행 중인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임상 시험 진행 도중 예기치 못한 부작용의 발생이나 임상시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임상시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p>
--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비소세포성 폐암 타깃 차세대 표적 항암제 BBT-176 은 현재 비임상 개발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 FDA 기준으로 항암제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은 통계적으로 전체 질환 치료제 중 가장 낮은 성공 확률을 5.1 %(출처: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06-2015)보이고 있는바, 임상시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당사가 수행중인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에는 기 투입된 임상시험비용을 회수할 수 없고, 파이프라인의 기술수출 진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술수출을 통한 수익,매출 발생 시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p><b>마. 연구개발 비용 증가에 관한 위험</b></p> <p>당사의 연구개발 비용은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진척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BBT-176, BBT-931 의 전임상, 임상 1 상비용 및 BBT-401, BBT-877 의 적응증 확대를 통한 개발비용 등 여러개의 파이프라인을 비슷한 시기에 임상에 진입할 계획에 따라 비용 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이러한 연구개발비 지출이 해당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성공 및 제품화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연구 개발 자금 충당 등을 위한 신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당사가 유상증자 (주주배정, 제 3 자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등)를 실시할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 기존 주주의 추가 출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바.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b></p> <p>당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2015년 설립연도 이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총자산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반기 시점에는 상환전환우선주 파생상품부채 평가 가치 상승으로 인한 부채 급증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당사는 설립이후 부터 현재까지 자본잠식 상태이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는 반기말 대비 상환전환우선주의 79.7%가 보통주 전환하였습니다. (RCPS 전환 전:3,445,795 주, 전환 후: 697,496 주)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 상 새로운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p>
--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자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따라 개발 단계에서 내/외부 요건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수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당사의 임상 계획 및 영업활동 계획에 차질이 생겨 이익 실현 가능 기간이 늘어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사. 당기순손실 시현 및 현금흐름 확보 지연 위험</b></p> <p>당사는 최근 2개 사업연도 및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반기(연결)기준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은 각각 11,754 백만원, 6,958 백만원의 당기순손실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파이프라인 개발 후 이를 공동개발 파트너사에게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Upfront Fee, 마일스톤 등의 기술이전 수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신고서 제출일 기준 BBT-877의 기술이전 계약을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하는 등 설립 후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순차적으로 개발단계가 고도화 됨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 인프라 구축 등에 따라 관련 비용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의 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술이전을 완료한 파이프라인 BBT-401과 BBT-877의 지속적인 임상 진행 및 개발 과정에 따라 당사에 유입되는 마일스톤 매출과 더불어 현재 연구개발 중인 신규 파이프라인의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 확대,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로 향후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과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인하여, 당사가 계획했던 시기보다 계약 체결 및 라이선스 아웃 등이 지연됨에 따라 매출 시현 또한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 재무안정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p> <p><b>아. 2019년 반기말 이후 변동 사항 미반영 유의</b></p> <p>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19년 반기말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p>
--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제출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p>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기타 투자위험</p>	<p><b>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b></p> <p>투자자에게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나.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b></p> <p>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 조 제 31 항 제 2 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요건을 적용받으며, 동 기술성장기업 상장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 조 제 7 항 및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 10 조의 3 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6 개월까지 행사 가능하며,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반청약자가 해당 공모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 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p> <p>※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p> <p><b>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취득 관련 위험</b></p> <p>당사는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0 조의 2 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35,000 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 개월 이후 18 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35,000 주가 보통</p>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주로 행사 가능하며, 동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b>라.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관련 지분 희석 위험</b></p> <p>상장 시 공모 주식 700,000 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b>16,666 주</b>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p> <p><b>마. 상장주선인의 상장 전 지분취득가액과 희망공모가액과의 차이 관련 위험</b></p> <p>당사의 상장주선인인 KB증권(주)는 2017년 7월 당사가 진행한 약 138억 원 규모의 증자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상장주선인은 당사의 주식 125,000주를 주당 16,000원에 취득(총 약 20억 원)하였습니다.(현재 주식 수 기준 125,000주, 주당 16,000원)</p> <p>상장주선인이 산정한 금번 확정공모가격 (<b>60,000 원</b>)은 KB증권(주)의 주당 취득가(16,000원) 대비 약 <b>3.75 배</b>입니다. 동 차이는 당사 보유 파이프라인의 가치 증대, 기술성평가 및 상장예비심사 통과로 인한 상장 가능성 증대 등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p> <p>KB증권(주)가 취득한 보통주 125,000주는 주식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9년 9월 3일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상장주선인의 투자기간 6개월 미만의 주식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상장주선인이 보유한 동 주식은 동조 동항 제2호의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개월의 보호예수 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바. 상장요건 미충족에 따른 재심사 가능성</b></p> <p>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p>
--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p> <p><b>사.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b></p> <p>공모주식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에 정주식수 5,525,181 주 중 보호예수 물량은 2,154,893 주로 38.98%입니다.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 1,448,000 주 (26.20%, 상장 후 1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 3자 배정 보유 주식 82,080 주(1.49%, 상장 후 1년), 사업전략파트너의 자발적 보호예수 177,017 (3.20%, 상장 후 1년) 전략적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보유 주식 421,330 주(7.62%, 상장 후 1개월) 및 상장주선인 의무보유분 주식 16,666 주(0.30%, 상장 후 3개월)와 금번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되는 9,800 주(0.18%, 예탁일로부터 1년)는 매각이 제한되는 주식입니다. 위의 물량을 제외한 보통주 3,372,669 주(61.02%)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최대주주 등 및 벤처금융 등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 등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p> <p><b>아.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b></p> <p>당사는 5 차례에 걸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였고,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550,000 주입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0 조의 2 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35,000 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 개월 이후 18 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35,000 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b>자.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b></p> <p>2009년 2월 4일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p> <p><b>차.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b></p> <p>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b>카.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 하락 위험</b></p> <p>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타. 공모 주식수 변동 가능 유의</b></p> <p>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후, 모집(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파. 사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b></p> <p>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제출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b>하.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한 영향</b></p> <p>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b>거.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b></p> <p>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신고서상의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 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b>너.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b></p> <p>당사의 희망공모가는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2023 년의 추정당기순이익 581 억원을 현재가치(2019 년 반기 기준/연 할인율 20%)로 할인한 금액에, 2019 년 반기 기준 비교기업의 평균 PER(28.42 배)을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추정 영업성과 및 추정에 반영된 다양한 변수는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실적이며, 당사의 과거 실적과는 괴리가 존재하는 등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시 활용한 비교기업의 선정과정에도 평가자의 자의성이 존재하며, 이 결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의 사업구조가 당사의 중점사업인 케양성 대장염 치료제 또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사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은 당사간 외형적 규모나 인지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들만 비교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PER 평가방식에 따라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평가액이 아니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p>
--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 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더.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b></p> <p>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은 보통주 1,448,000 주(상환전환우선주 포함 지분을 <b>23.26%</b>)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는 투자자 또는 기타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러. 집단소송 위험</b></p> <p>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류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b>머.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b></p> <p>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b>버.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b></p> <p>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8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서.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b></p> <p>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p>
--



#### 4. 핵심투자 위험요소

	<p>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 5 호제 1 항제 2 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p> <p><b>어. 증권시장의 일일가격제한폭 <math>\pm 30\%</math>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b></p> <p>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math>\pm 15\%</math>에서 <math>\pm 30\%</math>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